

정은경 장관,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 서울시 중구 자살예방센터 방문, 자살 고위험군 대응 현장 점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8일(금) 오후 3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 일선의 자살예방정책 사업 현황을 살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고위험군 발굴, 유족 지원, 위기 상황 등에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후 개최된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긴급 구조와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소방서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그 후 자살시도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상담, 유족 지원까지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현장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 사업 현황, 성과 및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였고, 향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발굴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사유로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배활립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관련 인력이 자살예방센터 1개소 당 3.6명으로 열악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노원경찰서 형사와 홍승택 서울특별시 소방위는 초기 출동 단계부터 자살 시도자 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의 동행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선아 응급실 사례관리자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 조치 이후에는 근본적인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계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지역 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배형우 서울시 중구 부구청장은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부구청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사례관리와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전담 공무원의 추가 배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라고 제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25억 원을 확보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5억원)과 잠재적 고위험군의 조기발굴을 위한 민간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4억원) 등을 강화하였다.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도 7월부터 사업 지역을 확대(중전 9개→12개 시도)하였으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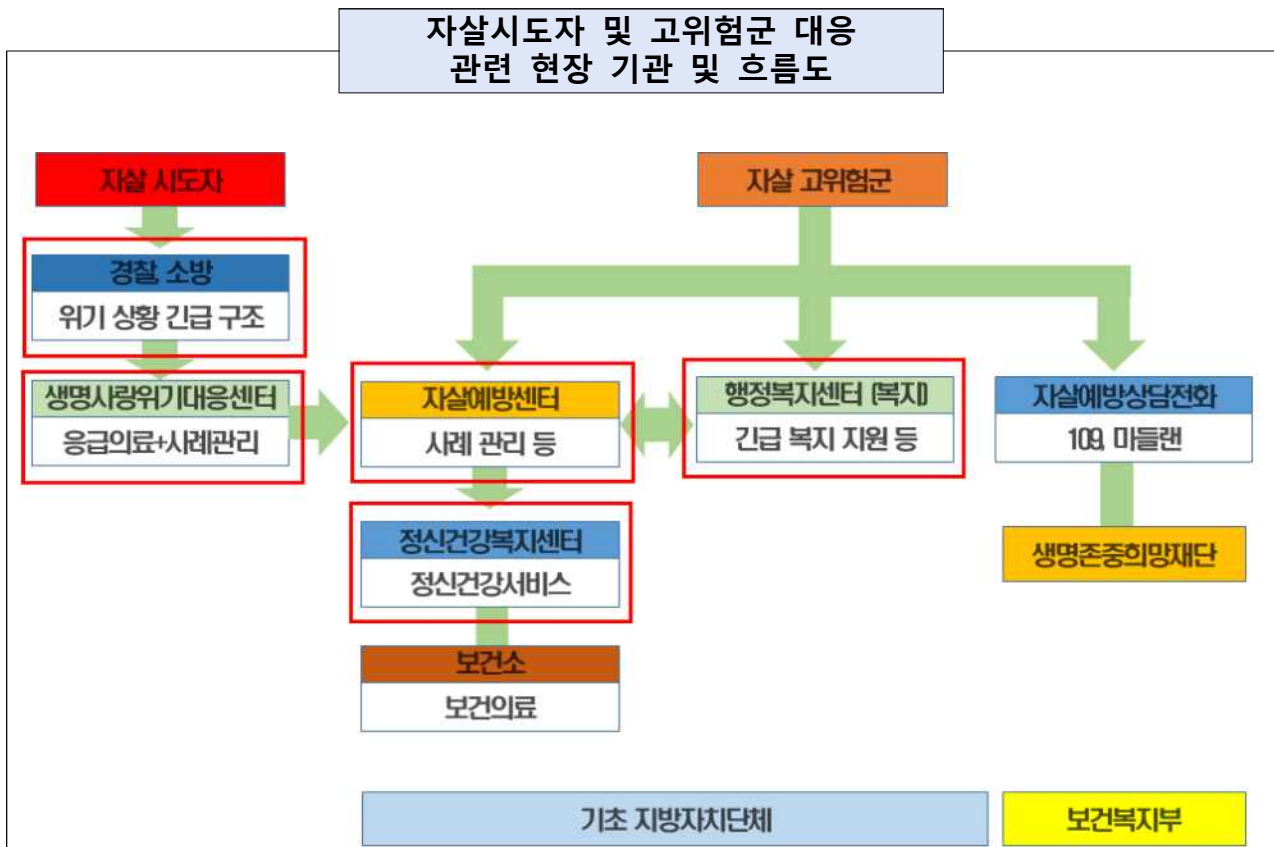
* 자살 사망 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초기 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 일시주거, 사후 행정처리 등을 지원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사회 최일선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리없이 다가오지만,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는 자살은 조용한 재난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립의 사회’에서 ‘연결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각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살예방센터를 보장하고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자살시도자·고위험군 대응 체계 흐름
2. 서울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3. 자살 사건 보도 시 안내 문구 관련 언론 협조 요청 사항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우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044-202-3899)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044-202-3893)
협력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책임자	부 장	위준영 (02-3706-0530)
	총괄협력사업부	담당자	지역협력팀장	김유리 (02-3706-0531)





-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①응급치료, ②초기상담·정신과적 평가, ③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총 4회), ④지역사회로의 연계로 구성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 ▶ (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자살 시도자 등의 위기지원, 자살사망 사후 대응 등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전국 255개소 운영 중이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독립 운영되는 경우는 55개소에 불과하며 그 외 200개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속한 팀 등의 형태로 운영 중**
-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정신질환자 등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전국 263개소(광역 17개소, 기초 246개소) 운영 중
-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에 소속되어 각 행정동, 읍, 면에서 ①행정·민원 업무와 ②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소에서 수행)
-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자살 위험군의 위기신호 조기발굴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 전화 상담 서비스
- ▶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 자살 위험군의 위기신호 조기발굴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텍스트 대화(①메신저, ②문자메시지, ③어플리케이션) 전문 상담 서비스

1. 목적 및 배경

- 자살예방정책 관련 주요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 중인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 자살예방 사업 수행 현황 확인 및 향후 지원 필요사항 등 청취

2. 행사 주요 내용

- 일 시 : 2025. 8. 8. (금) 15:30 ~ 17: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6길 16 중림종합복지센터 3층
 - (주요 조직 구성) 정신건강관리팀+정신건강증진팀+자살예방팀
- 주요 참석 기관 : 보건복지부, 서울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한양대병원 응급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서울시 재난대응과(소방), 노원 경찰서, 생명존중희망재단

3. 일 정

시간	내용	비고
15:30~15:40 (10)	· 인사 말씀	
15:40~16:15 (35)	· 자살예방 분야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16:15~17:15 (60)	· 자살예방 분야 현장실무자 간담회	
17:15~17:25 (10)	· 센터 현장 시찰	
17:25~17:30 (5)	· 마무리 및 기념 촬영	

1.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일환으로 자살 사건 보도 과정에서, 긴급도움 요청과 관련하여 삽입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고 각 언론사 내부에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내 문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준수하였습니다.

2. 참고로 2024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기존 1393, 1577-0199, 1388 등에서 “109”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 SNS 기반의 자살예방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이 개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